

삼성 KPMG

Samjong INSIGHT

Vol. 74·2021

삼성KPMG 경제연구원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Thought Leadership I

ESG, 기업가치의 뉴 패러다임

Thought Leadership II

ESG 경영전략 수립과
정보공시 대응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xecutive Summary

Thought Leadership I	ESG란 무엇인가?	02
ESG, 기업가치의 뉴 패러다임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	06
Thought Leadership II	ESG 경영전략이란?	22
ESG 경영전략 수립과	ESG 정보공시란?	24
정보공시 대응	ESG 경영 시대, 기업의 대응 방안	28

Contact us

이효정 이사	hyojunglee@kr.kpmg.com	02-2112-6744
김규림 이사	gyulimkim@kr.kpmg.com	02-2112-4089
임두빈 수석연구원	doobeenyim@kr.kpmg.com	02-2112-7469
박도휘 수석연구원	dohwipark@kr.kpmg.com	02-2112-0904
전창의 수석연구원	changuichun@kr.kpmg.com	02-2112-0934
장지혜 책임연구원	jihyejang@kr.kpmg.com	02-2112-7438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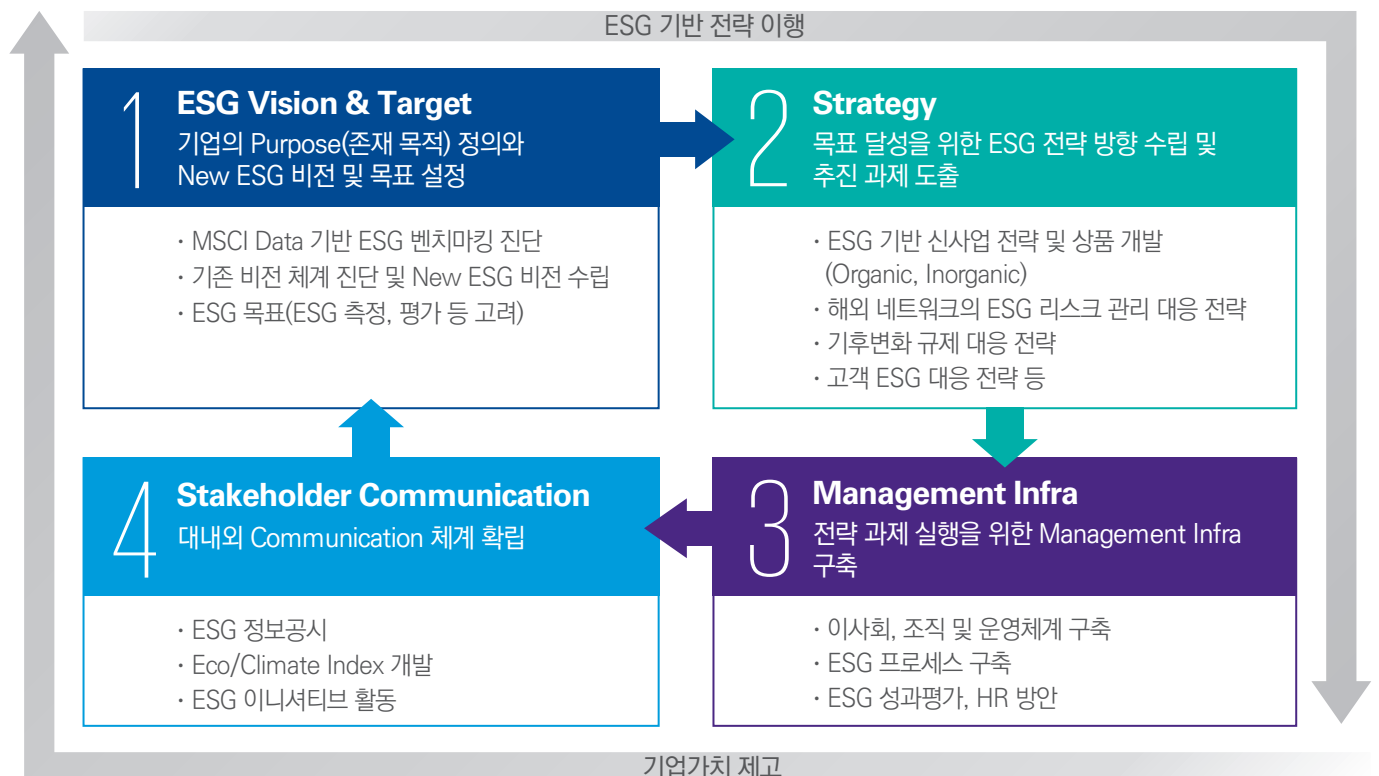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ESG가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본 보고서에서는 ESG의 개념 및 부상 배경과 함께 ESG가 기업 경영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업들의 성공적인 ESG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

기업 경영과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



ESG 경영체계 구축 Framework



Thought Leadership I

ESG, 기업가치의 뉴 패러다임



ESG란 무엇인가?

“ ESG는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비재무적 성과를 의미 ”

ESG의 개념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이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던 데 반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한 최근에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ESG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용어인 '지속가능성'에 나타나 있듯이, ESG는 기업가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보다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 환경,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하에서, ESG는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ESG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눠 살펴보면, 먼저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탄소배출 관련 이슈이다. 전 세계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앞으로 기업은 과감한 탄소배출 절감, 한발 더 나아가 탄소 제로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더 적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측면에서는 기업이 데이터 보호,

» ESG의 세부 요소와 개념

ESG의 세부 요소

ESG의 세부 요소	
E Environment 환경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 환경오염·환경규제 -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 에너지 효율 - 책임 있는 구매·조달 등
S Social 사회	- 고객만족 -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 인권, 성별 및 다양성 - 지역사회 관계 - 공급망 관리 - 근로자 안전 등
G Governance 지배구조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 뇌물 및 반부패 - 로비 및 정치 기부 - 기업윤리 - 컴플라이언스 - 공정경쟁 등

ESG의 개념

“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

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비재무적 성과

인권 보장과 성별 및 다양성의 고려,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러한 환경과 사회 가치를 기업이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뇌물이나 부패를 방지하고, 로비 및 정치 기부금 활동에서 기업윤리를 준수함으로써 높은 지배구조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ESG의 등장 배경과 기업 경영 패러다임 전환

최근 국내 기업 경영에서 ESG가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사실 ESG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개념은 아니다. ESG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개념인 지속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해, 기업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ESG가 부상하게 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이 주요한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제시되면서부터이다.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원과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인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의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대재앙이나 파국을 맞이하지 않고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97년에는 기업이나 기관이 발간하는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비영리단체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미국 보스턴에 설립되었다. GRI는 2000년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6년에는 GRI 표준(GRI

“
1987년 발표된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전 세계적 주요
의제로 등장 ”

》 타임라인별로 본 ESG 관련 주요 이벤트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 투자 및 자산 운용에 ESG를 고려한다는 UN PRI 발표 이후 ESG가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지표로 부상 ”

Standards)을 정립했다. GRI 표준은 경제, 환경,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이나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GRI 표준은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지속가능 보고서나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2006년에는 UN의 주도하에 지속가능성 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국제 투자 기관 연합체인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가 결성되었다. UN PRI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를 투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자산 운용 등에 고려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UN PRI에는 국내 국민연금을 포함해 2020년 3월 말 기준 전 세계 3,038개의 투자사 및 투자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UN PRI는 금융 투자 원칙으로 ESG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재 기업 경영에서 강조되는 ESG 프레임워크의 초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SG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공시 중 하나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에서 2017년 발표한 권고안이다.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UN PRI 준수 본격화와 TCFD 권고안 발표와 발맞춰 국내에서도 2021년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공시 제도에 따르면, 현재 자율공시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이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예: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게 의무화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한편,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 등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CEO가 참여한 BRT(Business Roundtable)는 2019년 8월 연례회의에서 기업의 주주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했다. 181명의 글로벌 기업 CEO가 서명한 선언에는 과거 주주(Shareholder)를 최우선시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2019 BRT(Business Roundtable) 선언의 주요 내용

BR Business Roundtable

- BRT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CEO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 서명에는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팀 쿡(애플), 메리 바라(GM), 제이미 다이먼(JP모건), 지니 로메티(IBM) 등 181명의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



1. 우리의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Delivering value to our **CUSTOMERS**.)
2. 우리의 직원에게 투자한다.(Investing in our **EMPLOYEES**.)
3. 공급자를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대한다.
(Dealing fairly and ethically with our **SUPPLIERS**.)
4.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Supporting the **COMMUNITIES** in which we work.)
5.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Generating long-term value for **SHAREHOLDERS**.)

“

ESG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공시
보고서에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성과의
통합을 이끌며 기업
가치의 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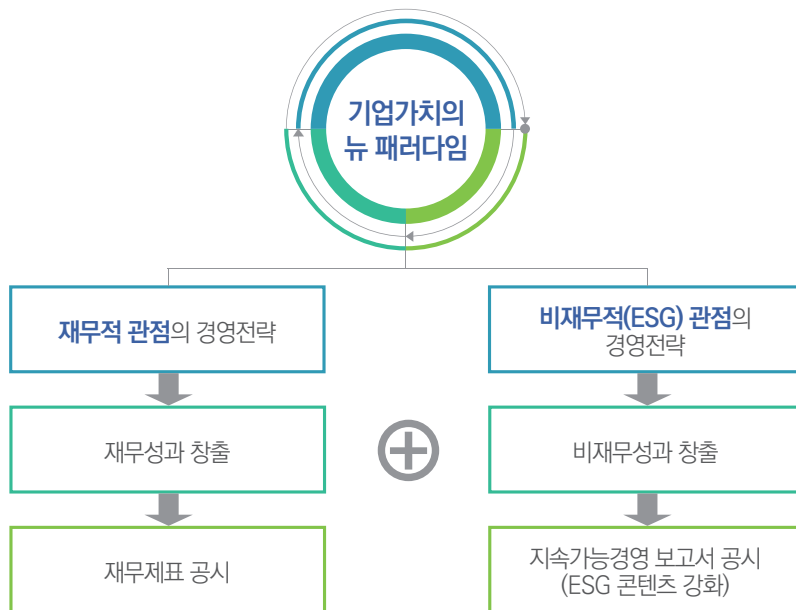
BRT 선언에 참여하기도 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2020년 1월 전 세계 최고경영자들에게 보내는 연례서한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와 ESG를 투자 결정에서 핵심 요소로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블랙록은 투자 프로세스에 ESG 정보 분석과 평가를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으며, 2019년 4억 5,000만 달러 규모에 머물렀던 ESG 운용 자산을 2020년에는 23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등 실제 자산 운영 및 관리에 ESG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으며, 이어 9월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이라는 제목의 지속가능한 가치 측정 가이드라인 백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KPMG 등 글로벌 빅4 회계법인이 참여해 작성되었으며, 거버넌스, 지구, 사람, 번영을 4대 축으로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제시되었다.

종합하자면, ESG는 1987년 발간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언급된 지속가능 발전에서 시작돼 2006년 UN PRI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국내에서 2025년부터 의무화가 예정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는 UN PRI 실행과 TCFD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발표, 각국의 ESG 공시 의무화 일정에 맞춰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2019년 BRT 선언이나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기업 경영과 자본주의가 강조되면서 ESG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ESG는 기업가치의 '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재무적 관점의 경영전략에서는 재무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며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성과를 외부에 공표해왔다. ESG는 대표적인 비재무성과로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와 ESG 콘텐츠를 통해 그 성과를 외부에 알리게 된다. 추후에는 이러한 재무 및 비재무성과가 기업의 경영전략과 공시 보고서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

» 비재무적(ESG) 성과와 재무적 성과의 통합을 통한 기업가치의 뉴 패러다임 전환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

“ ESG 활동과 기업가치 증대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지속되었으며, 최근 유의미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음 ”

ESG,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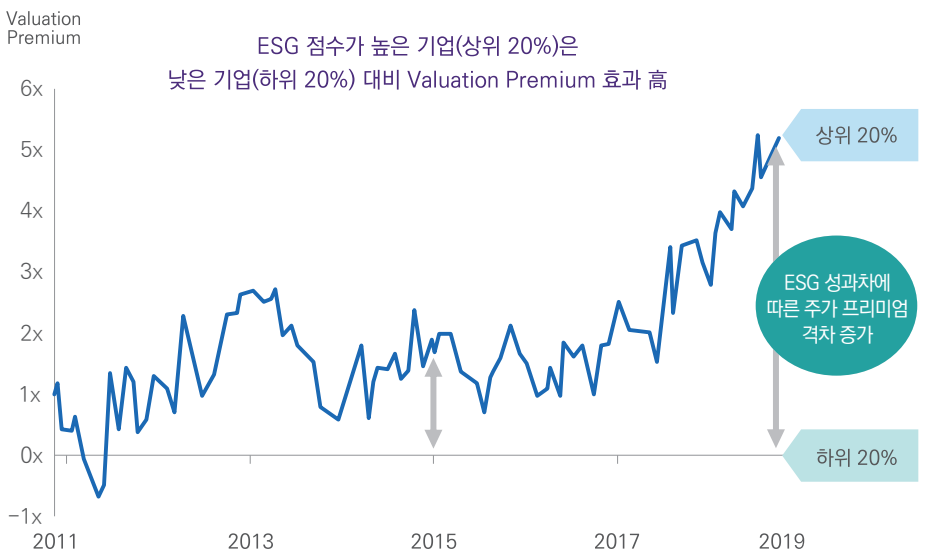
과거 많은 경영진과 투자자들은 ESG 활동이 기업의 가치 증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ESG 활동을 자사의 핵심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해 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ESG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활동에는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다.

ESG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기업들은 자사만의 ESG 운영지표, 사회적 지표 등을 개발하여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런 지표를 실질적인 재무적 성과나 기업의 가치 증대와 연계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껴왔다. 한편에서는 ESG 활동 효과가 다양한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증대에 간접적인 영향만 주며, 심지어 이마저도 실질적인 정량적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ESG 활동과 기업의 가치 증대와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러한 연구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발표한 'ESG from A to Z' 보고서(2019)에 따르면 MSCI ESG 점수가 높은 기업(상위 20%)은 낮은 기업(하위 20%)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Valuation Premium) 효과가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성과 등급에 따른 주가 Premium 분포: 1분위 vs. 5분위 그룹 비교



Source: Bank of America, 삼정KPMG 재구성
 Note 1: MSCI APAC(Asia-Pacific) 기준
 Note 2: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높아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함

“

ESG 규제 강화,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기업평가에
ESG 반영, 고객의 ESG
요구 증대로 ESG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더욱 커질 것 ”

MSCI ESG 점수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과거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약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9년 들어서는 약 5배 이상의 차이까지 증가하며, ESG 활동이 기업의 실제적인 가치 증대에 더욱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업계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ESG와 기업가치가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의 ESG 정보공시, 탄소감축과 같은 친환경 규제, 스튜어드십 코드 등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미국 바이든 정부와 EU(유럽연합)에서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에게 책임투자과 ESG 투자 전략 확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많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기업을 평가하는 데 ESG 활동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들 또한 기업이 어떠한 ESG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인해 앞으로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은 실제 기업의 매출과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업경영과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



“ 유럽 및 일본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추진 기초 ”

ESG 규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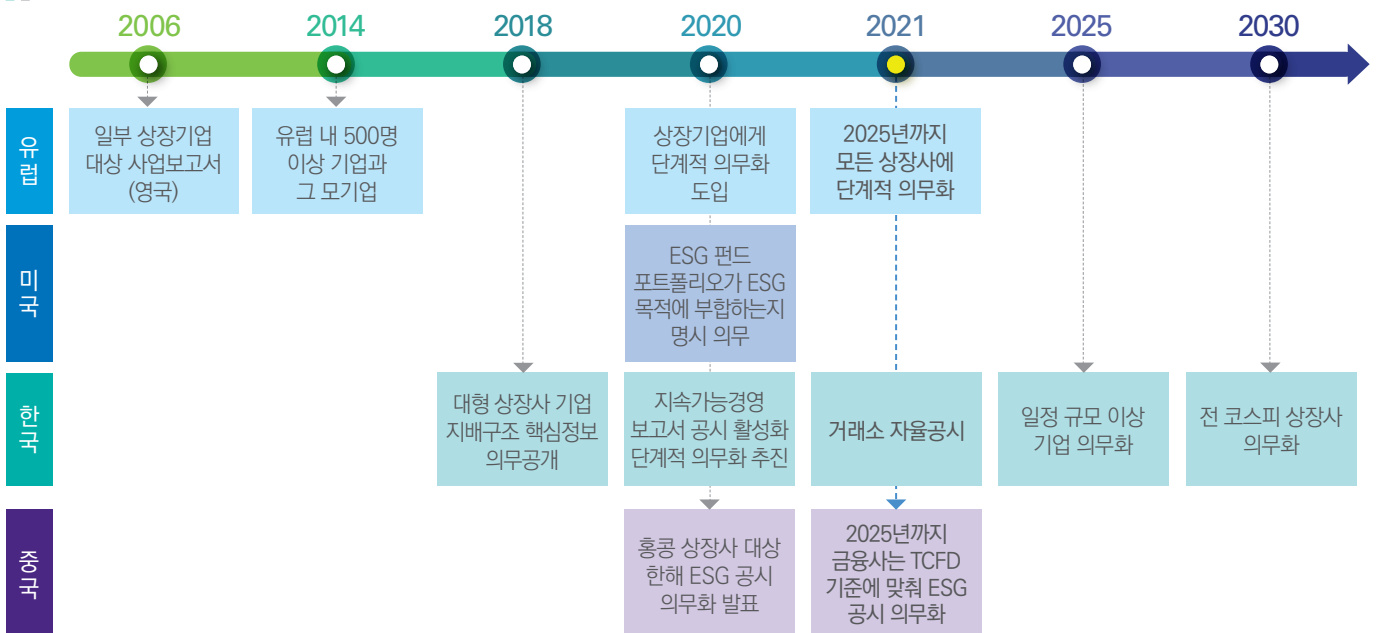
(1) ESG 공시 의무화

2000년대 전후로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ESG 요소가 투자수익 또는 위험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및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확대되면서 ESG 공시 논의가 촉발되었다. EU는 2003년 회계현대화지침(EU Account Modernization Directive 2003/51/EC)에서 연차보고서상 회사의 사업과 성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 환경, 고용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도록 하고, 영국 역시 2000년대 초반 연기금에 ESG 정보 공시를 처음 도입하였다. 특히, 2006년 UN PRI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6대 원칙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가 추진되었다.

최근의 행보로서 2018년 EU는 '지속가능성장 자원조달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금융 관련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ESG 공시 규정, 분류체계 규정, 저탄소 벤치마크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영국에서는 표준화된 기후변화 관련 공시체계 도입을 위해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탄소배출량 측정 및 목표 설정에 관한 권고사항을 평가하고, 재무보고서 등에 공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도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영국처럼 TCFD 기준을 참고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들은 20개국으로, 유럽은 2021년 3월부터 연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도록 계획했고, 영국은 모든 상장기업 대상이 2025년까지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크게 3단계 접근으로 1단계(현재~2025년)에서는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단계(2025~2030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예:

» 국내외 ESG 공시규제 추이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3단계(2030년 이후)에서는 전 코스피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한다.

ESG 요소 중 글로벌 차원의 주요 고려 사항인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마련을 위해 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기후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FSB는 2015년 TCFD를 설립했다. TCFD는 금융기업·비금융기업들로 하여금 환경 관련 일관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에게 지배구조, 투자전략, 위험관리, 탄소배출량 측정 및 목표 설정의 4개 부문을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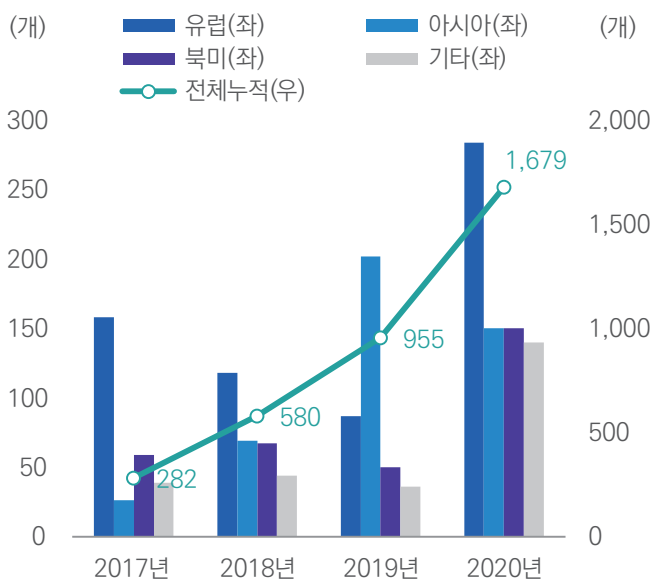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 장기 목표
의제로 부상 ”

기후위험 공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2021년 1월 기준 총 77개국, 약 1,700여 개 기업·기관에서 TCFD에 대한 지지선언(Supporter)을 했다. 유럽의 가입 기관 수는 664개로 가장 많으며, 아시아의 경우 447개 기관이 가입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활발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38개 일본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TCFD를 반영하는 등 유럽을 넘어 서서 아시아에서도 기후위험 등을 공시하는 추세이다.

(2) 탄소감축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관련 기업의 노력 확대

최근에는 기후변화 이슈가 유럽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체제는 1992년 유엔환경 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UNCED)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구체적인 감축의무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협약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계기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 기조로 전환되어 모든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이행 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UN 제출시한이 2020년 12월 도래하면서 모든 국가는 이에 맞게 국가별 목표량을 설정했고,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발표 중이다.

TCFD 지지선언한 기업·기관의 수



Source: TCFD

Note: 2021년 1월 기준 54개 기관이 신규로 지지선언을 하였으며 2021년 1월 기준 총 1,733개 기관이 참여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동향

국가	상세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 그린딜' 예산 1조 유로 투입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 ·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탄소국경세 도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및 청정에너지 개발에 연방 예산 투자 ·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 목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적응법 · 제 5차 에너지 기본계획 ·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 목표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 목표 ·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 탄소인지예산 도입 검토 등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60년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 목표 · 신인프라정책,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등 발표, 2021년 2월 1일 시행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기후위험은 국제적 관심에서 국가적 노력으로 변모하며, 최근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 ”

EU는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19년 2월 ‘유로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관련 법적 근거로 2020년 3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발의하여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탄소배출량이 높은 중국은 저탄소 배출을 위해 전국적인 탄소거래시장을 세우며, 탄소 다배출업체(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 6,000톤 CO₂)에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계획 및 탄소배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만~3만 위안의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생산에 China 6A 배기가스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위법 행위 일수에 따라 벌금을 누적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 당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미국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재가입했고, 100% 청정에너지를 위한 연방예산 투입과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을 발표했다. 탄소무역과 관련하여 EU와 미국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논의했고, EU의 자동차 배출 규제를 상향하는 등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구체화 되고 있다.

글로벌 저탄소 및 기후변화의 인식은 국제적 관심에서 국가적 노력, 기업의 노력으로 자발적 방식으로 변화 중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가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배출 기업들은 선제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4년 영국의 비영리기업에서 시작된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들 수 있는데,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사와 기업들도 RE100에 참여하고 ESG 투자를 확대하는 경영활동이 확산 중이다. RE100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이 참여하여,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205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 하겠다는 기업의 목표와 의지를 나타낸다.

» 주요 기업별 RE100 가입 및 진행 현황(2019년 기준)

기업	이행률	목표연도	재생에너지 조달방식
구글	100%	2017	· 자가발전(풍력) · PPA · 녹색요금제
애플	66%	2020	· 자가발전(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 PPA · REC 구매
마이크로소프트	100%	2017	· 자가발전(풍력) · PPA
페이스북	87%	2020	· 자가발전(태양광) · PPA
아비바(AVIVA)	66%	2025	· 자가발전(태양광)
GM	72%	2050	· 자가발전(태양광)
BMW	72%	2050	· 자가발전(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 REC 구매

Source: RE100, 'Progress and insights Report'

» 국내 한국형 RE100 도입

구분	기준	재생에너지 조달방식
Global RE100	·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인 기업	· 자가발전 · 직접계약방식 PPA · REC 구매 · 녹색요금제
한국형 RE100	· 연간 전기사용량 무관 · 국내에서 재생 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모두 참여 가능 · 재생에너지 100% 사용선언이 아니어도 참여가능	· 녹색 프리미엄제 · 제3자 PPA · REC 구매 · 자가발전 · 자본투자의 경우 해당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

Source: RE10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 1. 5), '21년부터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Note 1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란 에너지 생산자와 구매자 간 동의된 기간과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

Note 2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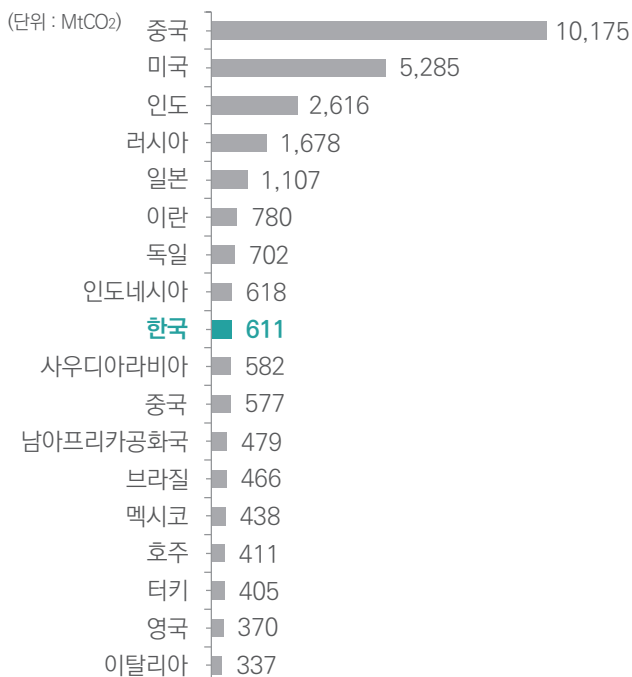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크레딧 구매, 풀링 계약, 친환경제품 생산으로 대응”

2020년 말 기준 140개국 총 280개 이상의 기업(미국 74개, 영국 39개, 일본 33개 등)이 가입하며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 2020년 SK그룹 8개 계열사가 RE100에 가입하여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RE100을 달성한 글로벌 기업은 약 40개에 달하며, 주로 태양광 발전의 자가설비 구축, 전력구매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비바(AVIVA)는 2015년에 가입하여 주로 자가발전과 전력구매계약 등의 방법으로 RE100을 달성했다.

유럽의 경우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에서 기업들이 달성 가능한 탄소배출 목표량을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21년부터 EU 내에서 생산되는 완성차들은 EU 차량배출목표(EU Fleet-wide Target)가 적용되는데, 신차들은 1km당 95g(95gCO₂/km)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차량배출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95€/g를 한 해 동안 판매한 차량 대수만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완성된 차량들은 탄소배출 저감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EU에서의 완성차 기업들은 신규 차량배출목표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 크레딧을 구입하거나 풀링 계약 또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을 생산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미국의 테슬라는 자동차 배기가스 목표를 위반한 유럽 기업 등에 크레딧을 판매해 2019년 5.9억 달러, 2020년 1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주)}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규모 글로벌 10위권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에 이어 2018년에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탈석탄을 위한 투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5월과 10월 각각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를 비롯하여 총 20개 기업·기관에서 TCFD 지지선언을 하고, 2020년 말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를 선언했다.

》 국가별 탄소배출 순위(2019년 기준)



Source: Global Carbon Project

》 탄소배출 목표량 준수·위반 사례

구분	기준	재생에너지 조달방식
볼보(Volvo)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기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EU로부터 크레딧을 제공받음 잔여 크레딧은 포드자동차와 풀링 계약을 통해 판매 추가 수익으로 친환경기술에 재투자할 예정
폭스바겐(Volkswagen)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스바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치 초과로 1억 유로의 벌금 부과
피아트(Fiat)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아트는 EU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자동차 테슬라로부터 탄소배출권 매입 - EU 탄소규제 미준수 시, 2021년 피아트 최대 20억 유로 벌금 부과 전망 - 이에 피아트는 테슬라 등으로부터 2019~2021년 탄소배출권 18억 유로 구입 결정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 Bloomberg(2021.1.27), 'Tesla Emission-Credit Revenue May Bloom Again 2021: Analyst'

“
 적극적 주주 역할과
 참여를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가입과 역할 확대 중
 ”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1)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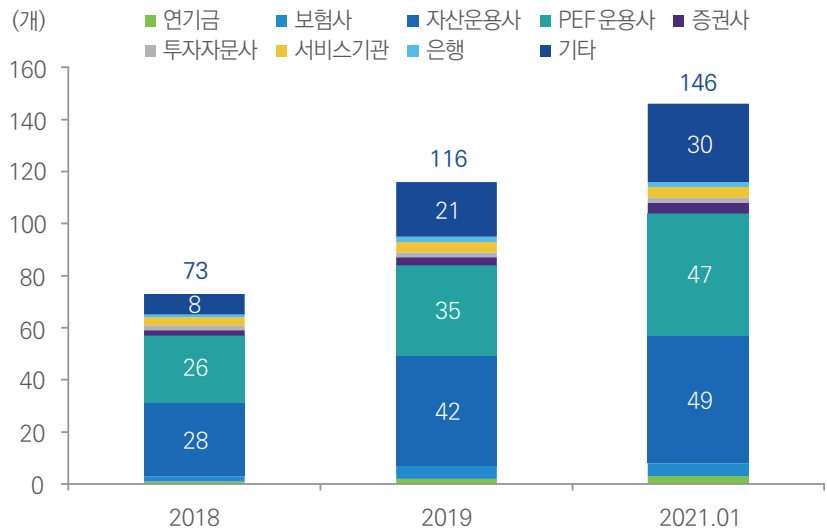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고객 및 수익자의 자산을 위탁 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장기적으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수탁자가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 지침이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확산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과거에는 기업이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지향했다면,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ESG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가 주주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를 이해관계자로 확장시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적 책임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2021년 1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가는 약 20개국이며, 현재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2014년 일본이 도입한 데 이어 우리나라는 2016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표하였다. 개별 국가별로 도입 양상은 조금씩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은 ①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② 기업지배구조 등을 개선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여, ③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과 경제 발전 등 선순환 구축을 위해 행동할 것으로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2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도입되었으며,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과 공개,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내부 지침, 의결권 정책 및 행사내역 공개,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등

»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Sour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국내외 스투어드십
코드 확대 등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와
투자 기준 강화 ”

7가지 세부원칙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식 대량보고(5% 룰) 개정 및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10% 룰) 보완 등을 추진하며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확산을 유도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연기금 및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가입이 확대되어 2021년 1월 총 146개 기관 및 기업이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 중이다.

국내 첫 기관투자자로 국민연금이 2018년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이어 우정사업본부 역시 2021년 1월 이를 도입했다. 그 외 다수의 민간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등도 스투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였으며, 민간 금융사인 KB금융그룹은 6개 계열사에 대해 스투어드십 코드를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ESG 요소를 기업가치에 반영하여, 투자회사와 고객에게 중장기적 이익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 등에 기초하여 해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 개정도 활발하다. 일례로 2017년 EU의 개정 주주권리지침(Shareholder Right Directive)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의결권 자문기관, 임원 보상,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관한 개선 조치를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생 협력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제·개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동 규제는 상법상 다중대표 소송제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과 더불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강화, 지주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기관투자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현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집단소송제는 현재 추가조작이나 공시 의무 위반, 분식회계, 불완전판매 등 증권분야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전 분야로 확장법을 추진 중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일반적용을 논의 중이다. 입법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 투자자를 비롯하여 전 이해관계자가 기업지배구조 등에 관심을 갖고 투자 기준이 높아지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강화 기초

법률	주요 내용 및 규제 목적
상법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 감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정비 및 선임 결의요건 완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명확화 → 정부는 대주주의 전횡방지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익편취 규제 대상 대폭 강화, 지주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강화, 기업결합신고 대상 확대,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 강화,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정보교환 담합 규정 신설, 일반지주회사 제한적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 근절, 법 집행체계 합리화, 혁신성장 지원 등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 반영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5조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 위험 관리 체계 구축, 자본 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 방안 마련 →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기관투자자의 ESG 요구가 주주참여 및 투표권, 투자배제 형태로 다양화 ”

(2) 책임투자 등 기관투자자의 ESG 활용 확대

ESG는 유럽의 네덜란드 연기금 및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연기금을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보편화됨에 따라 ESG 투자원칙이 수립되어 ESG 투자를 내재화하는 추세이다. 연기금들은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함께 주주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업이 ESG 경영을 지향하도록 유도한다. ESG 투자전략 중 대표적으로 ESG에 반하는 기업(주로 무기, 환경오염, 아동착취, 담배생산, 투자금지된 국가에 무기판매 등과 관련 있는 기업)들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과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기업 혹은 프로젝트를 선별해 투자하는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 전략 등이 사용되며, 주로 연기금의 경우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비중이 높다. 반면 일본의 GPIF는 투자배제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투자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는 2017년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는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여 약 122개 기업의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뱅가드(Vanguard),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투자자문(SSGA)에서 ESG를 고려한 뮤추얼펀드와 ETF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ESG가 빠르게 보편화되었으며, 블랙록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사들의 ESG 요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블랙록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확대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주문했다. 블랙록은 매출액의 25%를 석탄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부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을 매도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이후 지속가능한 펀드를 현재 14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블랙록은 모든 포트폴리오에 ESG 통합을 적용하고, 기업들이

» 글로벌 연기금의 ESG 투자전략

연기금명	투자전략
노르웨이 연기금 GPFG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 포지티브 스크리닝 · 네거티브 스크리닝
네덜란드 ABP (Algemeen Burgerlijk Pensioenfonds)	· 포지티브 스크리닝 · 네거티브 스크리닝 · 주주권리 행사 및 적극적 소통 전략
네덜란드 APG (All Pensions Group)	· 포지티브 스크리닝 · 네거티브 스크리닝 · 주주권리 행사 및 적극적 소통 전략
미국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 포커스리스트(Focus List) 및 네거티브 스크리닝 · ESG 통합 전략
국민연금	· ESG 통합 전략 및 스크리닝 전략
일본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 주주권리 행사 및 적극적 소통 · ESG 통합 전략 · 투자배제방식 미적용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시와 전략, 사업관행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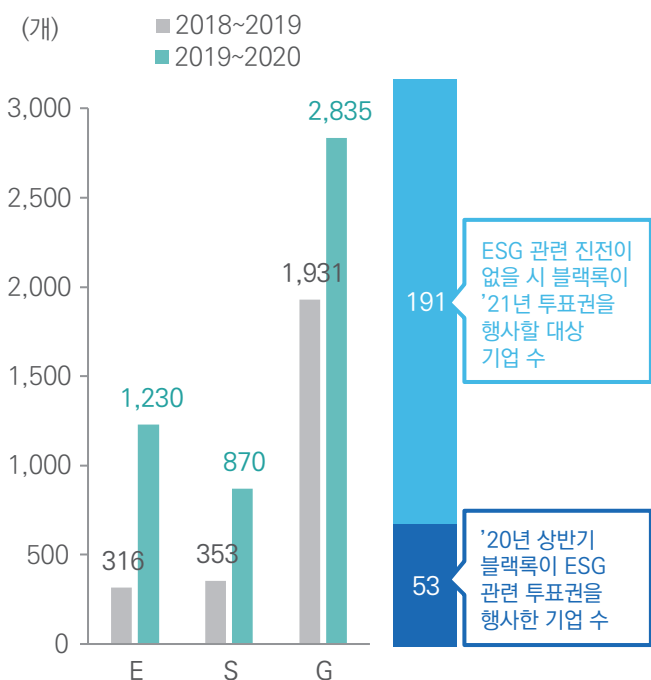
블랙록은 ESG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주주관여(Engagement)를 통해 개입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투표(Voting)를 통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여하고 투표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주관여 방식 중 환경(E) 부분에 대한 주주관여 기업은 2019~2020년 1,230개로 전기(316개) 대비 289% 증가하고, 사회(S)와 지배구조(G) 부분 주주관여 기업 수는 동기간 각각 146%, 46% 증가했다. 또한 블랙록은 2020년 상반기 주주총회 의안 분석에서 총 53개 기업의 의안을 반대했다. 일례로 블랙록은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ExxonMobil)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것과 이사회의 독립성 결여를 사유로 경영진 선임에 반대투표를 행사했다. 또한 일부 회사들의 투자배제와 석탄 및 환경오염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에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SSGA는 2017년 이후 성평등 및 다양성 위주의 ESG 활동을 하였으며,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ESG 관련 주주관여 및 의결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한국투자공사도 전체 포트폴리오 및 투자 프로세스에서 ESG를 고려하는 ESG 통합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그린뉴딜에 따라 사회책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친사회적 지속가능 경영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금융권에도 ESG가 기업 대출의 평가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속가능연계대출(Sustainability-linked bond/loan, SLL)은 대출금리 설정 방식에 있어 차입기업의 지속가능 활동을 연계하는 상품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지속가능연계 대출은 ESG 외부 평가기관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신규 대출이나 대출 갱신 시 금리조건에 주로 친환경 지표이거나 에너지 사용 등 다양한 ESG 평가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고려된다.

美 글로벌 자산운용사 ETF 중심으로 ESG 투자 확대 및 자산 운용사의 ESG 요구 증대

블랙록의 주주관여 및 투표권 행사



Source: BlackRock(2020.7.8), 'Our Approach to sustainability-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기관투자자의 ESG 요구와 투자배제

기관투자자	대상기업	대응
APG	에어버스, 필립모리스 등 159개 기업 (2020. 6.1기준)	· 무기제조 등의 이유로 투자배제
NBIM	아보이티즈 파워, 듀크에너지, 콜인디아 (Coal India) 등	· 환경파괴 및 무기제조, 담배판매 등의 이유로 투자배제
BlackRock	엑손모빌, 스탠다드 차타드 등 53개 기업	· 환경오염개선 미흡 등으로 이사 선임 반대 등 의결권 행사
Vanguard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 중국 군수 관련 기업 투자 금지로 주식매각
SSGA	ESG 저성과 대기업	· 서신 발송 및 ESG 개선안이 부실한 투자 대상 기업에 의결권 적극 행사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국내, 금융회사의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ESG 통합 금융생태계 환경 조성 지원 ”

국내에서도 기업은행 및 KB금융과 신한금융 등에서 최근 이를 도입하여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지속가능연계대출은 도입 초기 단계로 외부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자격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제도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에서는 금융규제 체계에 ESG 요인이 통합되어 국내 금융회사들도 ESG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2021년 2월 금융위원회가 「금융발전심의회」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ESG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일례로, 탈석탄을 선언한 금융회사에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잔액)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나 ESG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ESG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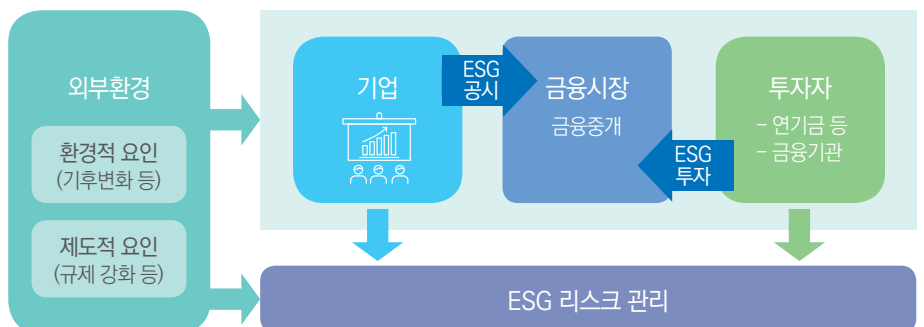
또한 선진국의 ESG 제도 및 규제를 그대로 국내 금융기업들에 반영하기보다는 국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하고, ESG 관련 일반 기준을 정립하더라도 모범사례·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제공하여 기업과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에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속가능연계 대출 관련 국내외 현황

구분	기업	금리변동 기준
글로벌	ING 외 15개사 공동 10억 유로 → Philips(2017.4)	일자리 창출
	MUFG·Norinchukin·Mizuho·SMBC 500억 엔 → NYK line(2019.11)	ESG 등급
	BNP Paribas·Commerzbank·UniCredit 7.5억 유로 → Telefonica(2019.12)	ESG KPI
	SMBC 1억 파운드 → Clarion(2020.1)	ESG 등급
	OCBC 2억 유로 → Mapletree(2020.3)	ESG 등급
국내	현대커머셜/크레비스: 기업대출심사·투자 시 ESG 등급 반영(2020년 3월 이후)	
	KB금융: 중소기업 대출심사에 ESG 등 비재무 정보 반영 방안 검토 중	

Source: 언론보도 종합

» ESG 금융생태계의 구성



Source: 금융위원회(2021.02.09), OECD(2020), 삼정KPMG 경제연구원

“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신용 등급에
반영하기 시작 ”

기업평가에 ESG 반영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 S&P(Standard & Poor's) 등에서는 ESG 평가 결과를 신용 등급에 일부 반영하고 있다. S&P Global의 경우, 환경오염이나 탄소배출량, 안전보건,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으로 분류하여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조정했다. 예를 들어, 듀크에너지(Duke Energy)의 경우 석탄발전소에서 과도하게 석탄재가 배출되어 환경오염적 요소로 신용등급을 'A-Stable'에서 'A-Negative'로 조정하여 ESG에 따른 신용위험을 알렸다. 신용평가기관들은 ESG가 확대됨에 따라 ESG 전문 역량 보유기관 및 ESG 평가기관을 M&A를 통해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재무적 성과를 포함하는 사례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0월 한국신용평가기관은 ESG 채권 인증 평가사업을 최초로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자체 내 ESG 금융 평가방법론을 기준으로 한국중부발전이 발행한 제 59회 공모사채(지속가능채권)를 평가하여 STB1의 최종평가를 부여했다. 평가방법에는 발행기업이 ESG 관련 지속가능경영,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에 대한 회사의 의지, 프로젝트가 적격사업 기준에 부합하고 조달 자금 전략을 프로젝트에 투입하는지 등을 평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기업들의 ESG 경영이 재무적 위험을 넘어 신용위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ESG 평가결과 신용 등급에 반영



- MOODY'S**
 - ESG 기반으로 전체 기업 33% 신용등급 조정(2019년)
- Fitch Ratings**
 - 신용등급 평가 시, ESG Risk 수준이 높을 경우 반영
- S&P Global**
 - 개별 기업 신용등급 상/하향 사유에 대한 ESG 영향 공시

Source: 삼정KPMG

» 자체 ESG 평가 역량 강화

ESG 평가 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신용평가 기관들은 'ESG 전문 역량 보유 기업 M&A 확대'

- '17. 7** **MORNINGSTAR**
 - Sustainalytics 지분 40% 인수 (ESG 평가 기관)
- '19. 4** **MOODY'S**
 - Vigeo Eiris 인수 (유럽 ESG 연구/평가 기관)
- '19. 10** **S&P Global**
 - Trucost 그룹 인수 (탄소/환경 데이터 관리 기업)
- '19. 12** **S&P Global**
 - RobecoSAM 인수 (DJSI 평가 사업)
- '20. 12** **S&P Global**
 - IHS Markit 인수 (금융정보업체/ESG 기후위험 분석)

Source: 삼정KPMG

“ 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망 관리 ESG 이니셔티브 확대 ”

고객의 ESG 요구 증대

(1) 공급망 관리와 협력업체에 요구되는 ESG 책임

기업의 ESG 영향력 확대, ESG 공시 강화와 투자자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단순한 마케팅 차원을 넘어 생산과정 전반에서 ESG 요소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최근 생산과 소비가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분업체계로 구축되면서 원료 확보부터 상품 조립과 공정 과정 등 주요 생산과정을 다양한 글로벌 협력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이나 환경적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반면, 관련 문제 발생 시 직접적으로 브랜드 가치 저하 등의 리스크에 당면하게 된다.

이에 글로벌 주요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 전 생산과정에 대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경영과제로 삼고 있다. 더불어 높아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반영하여 UN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이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은 기업이 하도급 기업을 포함하여 업무상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요소를 고려하여 협력업체 등 공급망 관리를 통해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도모 중이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본 RE100 가입 기업은 자사와 거래하는 공급망 내 협력사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 등을 포함하여 2019년 기준 RE100 가입 기업의 약 50%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업계의 공급망 관리 ESG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참여 기업
윤리무역협회 (Ethical Trading Initiative)	자사 공급망 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윤리구매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기업의 윤리 경영 인식 제고	· 국제노동조합연합(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등 국제기구 · 아소스(Asos), 버버리, 테스코(Tesco), 바디샵 등 112개 기업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비즈니스협회(amfori)	차별 및 아동노동금지, 윤리경영 공정 보수 등 11개 행동규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사회환경적 성과 관리 및 글로벌 공급망 정보 공유	· 46개국 이상, 2,400개사 멤버 가입 - 수출업자 1,596개사, 브랜드사 452개사, 소매업체 264개사 등(2020. 6 기준)
책임있는 비즈니스동맹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	책임있는 공급망 실현을 위해 회원국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실사 표준, 도구 및 프로그램 제공	· 150개 이상 전자기업, 소매업체, 자동차기업 등 - 애플, BMW, 시스코(Cisco), 포드, 페이스북, IBM,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지속가능 의류연합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의류, 신발 및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히그지수(Higg index) 개발, 제조과정의 친환경 및 윤리성 인증 하이인덱스2.0(High Index 2.0) 등 공급망 내 사회환경적 요소 평가	· 250개 이상 브랜드 및 소매업체, NGO 등 기관 - 알도(ALDO), 아마존, 크루스, 디즈니, 게스, H&M 등

Source: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연구원(2018.10), 공급망 관리와 CSR-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규제와 산업계 대응, IPS CSR·CSV 동향 리포트 18-04 및 각 이니셔티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정리

Note: 참여 기업 현황의 경우, 2021. 2. 3 기준

“ 협력사 ESG 관리 역량에 따라 기업가치 타격부터 기업 경쟁력 제고까지 다양한 영향 가능 ... 최근 적극적 공급망 관리 방안으로 변모 ”

한편 국제 무역이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공급망 관리 이니셔티브가 국제적으로 마련되어 회원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해 노동권, 인권, 환경 보호, 안전 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다양한 국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다. 대표적으로 국제 무역과 관련하여 윤리무역협회,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비즈니스협회(amfori) 등은 노동권리, 윤리 경영 등의 행동규범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무역 비즈니스를 지향하며, 가입사가 공급망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책임있는 비즈니스동맹(RBA)과 패션섬유산업 지속가능 의류연합(SAC)의 경우 각각 초기 소수의 전자기업과 섬유기업이 시작한 공동의 이니셔티브였으나, 최근 참여기업 확대 등을 통해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과거 협력사의 ESG 관리 실패가 기업가치 저하 등으로 귀결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ESG 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코발트 채굴에 아동 노동 착취 문제와 환경문제 논란이 야기되어 2019년 국제권리변호사회로부터 피소되었다. 이에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100% 니켈 함유 전기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으며, 공급망 내 근로자 인권 및 근로환경개선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애플의 경우, 디자인부터 물류, 고객지원까지 모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하여 협력업체의 성과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BASF)의 경우, 유사 업종의 화학기업과 공동의 행동강령과 리스크 기반 매트릭스를 개발하여 협력사를 관리하며 경쟁력 강화를 모색 중이다.

» 주요 기업의 공급망 관리 주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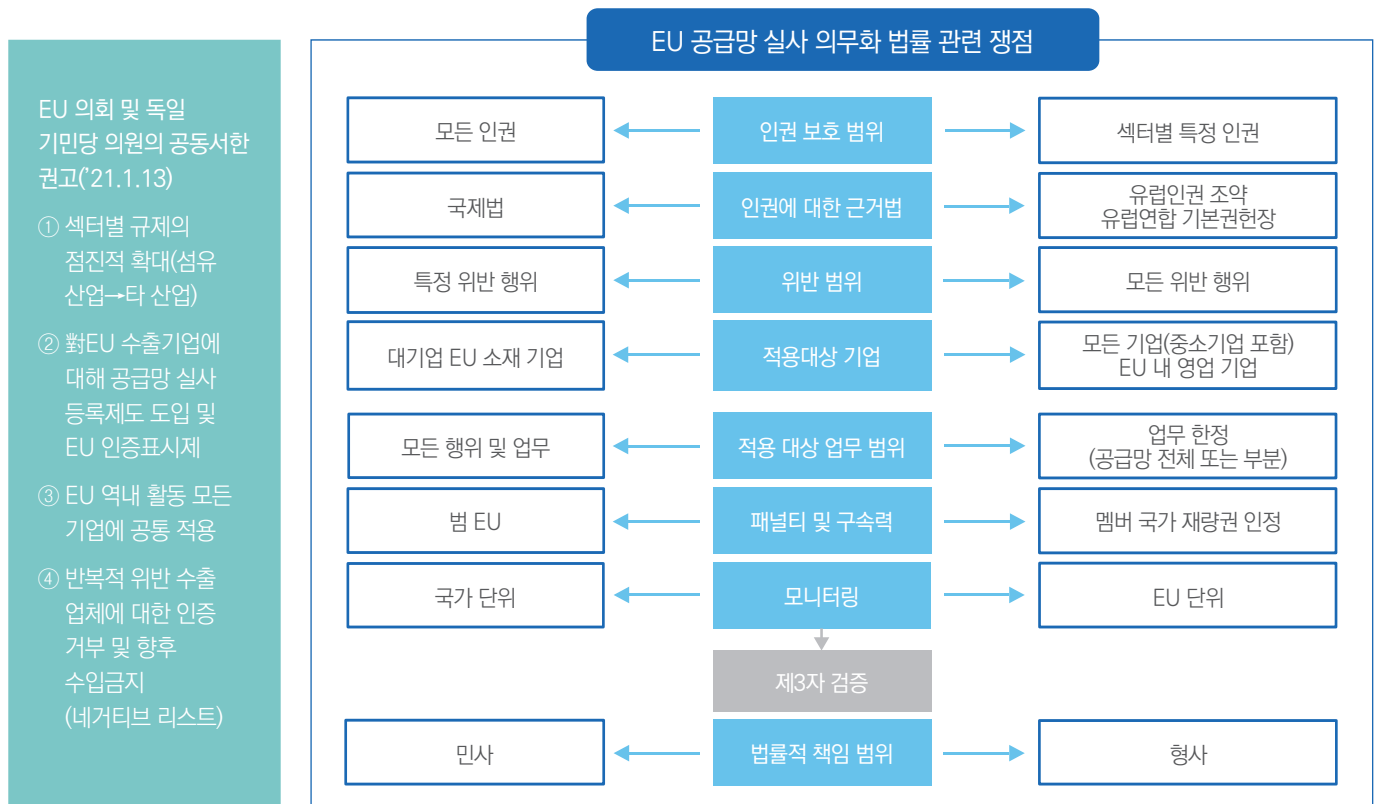
기업	관련 사례 및 대응
테슬라 (Tes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발트 채굴과정에서 아동 노동착취와 환경오염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며, 테슬라가 인권침해 및 불법채굴을 인지함에도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국제권리변호사회(IRA)로부터 2019년 피소 - 전기자동차 등에 필요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코발트는 전 세계 공급량의 60%가 콩고에서 생산, CNN 등은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콩고의 아동 노동 착취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 · 테슬라는 '2019 임팩트 보고서(Impact Report)'에서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코발트 프리(Cobalt Free)'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 - 테슬라 배터리에 니켈 함유량을 높이고 코발트 비중을 줄여 나감으로써 100% 니켈 배터리를 만드는 코발트 프리 지향 - 공급망 내 근로자 인권 보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부품 대체로 비용절감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이루겠다고 발표
애플 (Ap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100 참여기업으로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계획(2030년까지 협력사는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 공급)' 발표 · 공급망 내 모든 단계의 협력업체에 대한 노동권, 인권, 건강, 환경보호 등 행동수칙(Apple Supplier Code of Conduct) 마련 및 성과 평가 - 2019년 49개국 총 1,142개 협력업체 평가 완료 및 100만 톤 이상의 탄소배출량 감축 - 고득점 사업자 비율: 2014년 26% → 2017년 47% → 2019년 82%
바스프 (BAS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글로벌 화학기업으로서 공급업체 행동수칙(Supplier Code of Conduct) 제정 및 준수 - 국제노동기구 등의 원칙 및 글로벌 화학산업 책임관리 프로그램 기반 협력사의 ESG 표준 준수 의무화 · 공동의 화학산업계 이니셔티브 'Together for Sustainability(TfS)' 설립 -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과 협력사의 ESG 기준 강화를 통한 제품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2011년 바이엘, 헨켈, 솔베이와 함께 TfS 창설 - 공동의 공급업체 평가 및 감사의 글로벌 표준화 목표, 리스크 매트릭스 기반 TfS 프로그램 시행 및 이에 따른 협력사 현장 실사 및 지속가능성 평가 - 2019년 협력사의 81% ESG 요소 평가, 재평가로 52% 성과 개선

“ EU, 기업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 도입 입법화 추진 ... 향후 기업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한편 EU에서는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의무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추세이다. EU는 2018년 분쟁지역의 광물 수입 기업에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한데 이어 EU 집행위원회 및 EU 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인권침해 또는 환경 위반에 대한 실사 의무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특히, EU 의회는 2020년 11월 노동 및 인권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EU 의회 법무위원회는 2021년 1월 ① 기업에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 및 환경 등을 침해하는 활동 여부의 확인·보고·개선 의무 부여, ② 리스크 발생 시 기업의 해당 내용과 대책 공개, ③ 위반 시 벌금 부과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 권고안을 채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 2분기 내 법률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채택안의 적용대상은 EU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까지 포함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실질적인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인권 보호 범위 및 근거법, 위반 범위, 적용대상 기업 등에 대해 다양한 쟁점 또는 논의 사항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EU 의회 및 독일 기민당 의원은 2021년 1월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공동서한에서, 작업환경인증제도와 공급망 인권현황에 관한 디지털 및 표준화된 등록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며,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타 산업군에 공급망 실사 의무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300개 기업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동 법안의 한계점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EU의 ESG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기조를 고려 시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EU 기업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률 관련 쟁점 사항



Source: 언론보도 종합,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2020), 'EPRS Briefing: Towards a mandatory EU system of 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

(2) 소비자의 니즈 변화

소비자들은 점차 기업의 제품이 사회적·환경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영사상전문가 사이먼 사이넥(Simon Sinek)은 골든 서클(Golden Circle) 이론을 설명하며,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가’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왜 그것을 했는가’로 제품을 구매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과거에는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무엇(What)’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최근 소비자들은 ‘무엇’을 넘어 ‘어떻게(How)’와 ‘왜(Why)’까지 고려하며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소비자들은 기업이 생산한 최종 제품의 디자인, 품질 등에 집중했다면, 최근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은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나아가 제품이 담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사회·환경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출생자)와 Z세대(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진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오염과 미세먼지 심화 등을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밀레니얼·Z세대는 환경 이슈에 민감하다. 또한 정의란 무엇인지, 올바른이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업의 제품을 살때도 기업의 진정성, 진실성, 도덕성을 구매 기준 중 하나로 여긴다. 즉, 의식 있는 컨셔스(Conscious) 소비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전 세계 소비 시장의 주역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소비 성향 변화는 기업들에게 ESG 활동이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게끔 의식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
과거 소비자들에게
‘무엇(What)’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최근엔 ‘무엇’을 넘어
‘어떻게(How)’와
‘왜(Why)’까지
고려하며 제품을 구매
”

» 골든 서클(Golden Circle)로 살펴본 소비자의 행동 변화



Thought Leadership II

ESG 경영전략 수립과 정보공시 대응



ESG 경영전략이란?

“ ESG 성과 우수 기업의 제품 수요 증대·투자 확대· 자본조달 비용 감소...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정보공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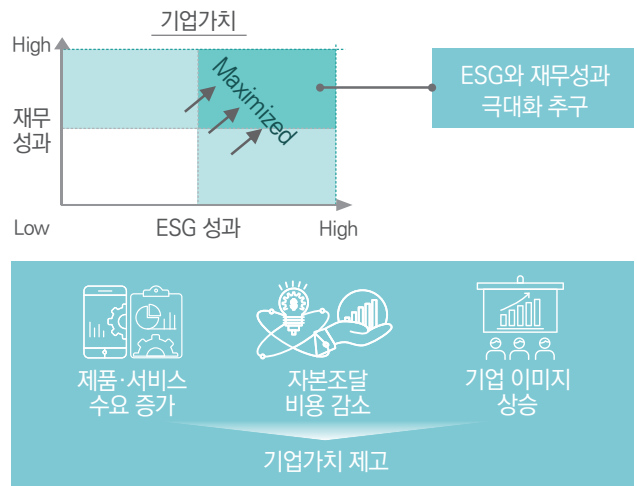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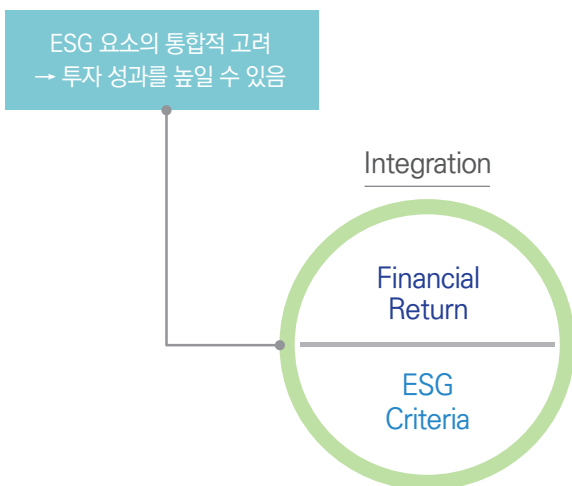
ESG 경영 부상과 비재무적·재무적 기업가치 강화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고객, 정부 등이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ESG 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의 ESG 전략 수립과 정보공시는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는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이 감소되고, 기업의 이미지 등이 개선되어 기업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미션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기업들은 주로 재무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경영 활동을 해왔다. 첫 번째 경영 활동은 경영전략 수립이었다.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하고, 기술을 혁신하며 다양한 조직 역량 강화와 투자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했다. 두 번째 경영 활동은 이와 같은 경영전략 활동에 따른 경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부분이었다.

안정적 장기 투자 및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ESG 전략



ESG도 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영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로 ESG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는 ESG 성과를 시장에 공시하는 것이다. 결국 기업은 기존 재무적 관점의 경영 활동과 더불어 비재무적 ESG 경영 활동도 함께 전개해야만 기업가치를 높이고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ESG 경영이란 ‘ESG 경영전략’과 ‘ESG 정보공시’로 구분이 될 수 있으며, ESG 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ESG 경영전략 개념 및 실행 과제

“기업의 사업구조가 넷제로와 양립할 수 있는 계획을 공개하라.”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가 2021년 1월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 담긴 메시지이다. 1년 전인 2020년 초 래리 핑크 CEO는 연례 서한에서 앞으로는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투자를 하겠다고 공표하며 본격적인 ESG 경영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블랙록은 2021년 들어서는 기업이 넷제로를 사업 전략에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내세우며, 전 세계 경영진에게 ESG 전략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ESG 경영전략의 부상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적잖은 경영인이 알고 있지만, ESG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ESG 경영전략의 개념은, ESG 관점에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 실행 체계 등을 구축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대와 ESG 채권 발행, 친환경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활동 등은 ESG 경영전략에서 수립되는 과제이다. 또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테크를 활용해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과 사회·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도 ESG 경영전략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친환경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및 M&A 활동도 ESG와 연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기업의 리더는 기존의 경영체계를 ESG 경영체계로 재설계해야 한다. 기업의 목표와 비전을 ESG 기준에 맞춰 재정립하고, 기업의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통합한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과제 도출을 위한 ESG 경영전략 체계로 재수립해야 한다.

» ESG 경영전략의 의미와 주요 과제



“ ESG 전략 수립 및 실행... ESG 관련 비즈니스 시장 성장 및 글로벌 사업 모델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ESG 정보공시란?

“ ESG 정보공시는 기업의 ESG 정보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개념 ”

ESG 정보공시 개념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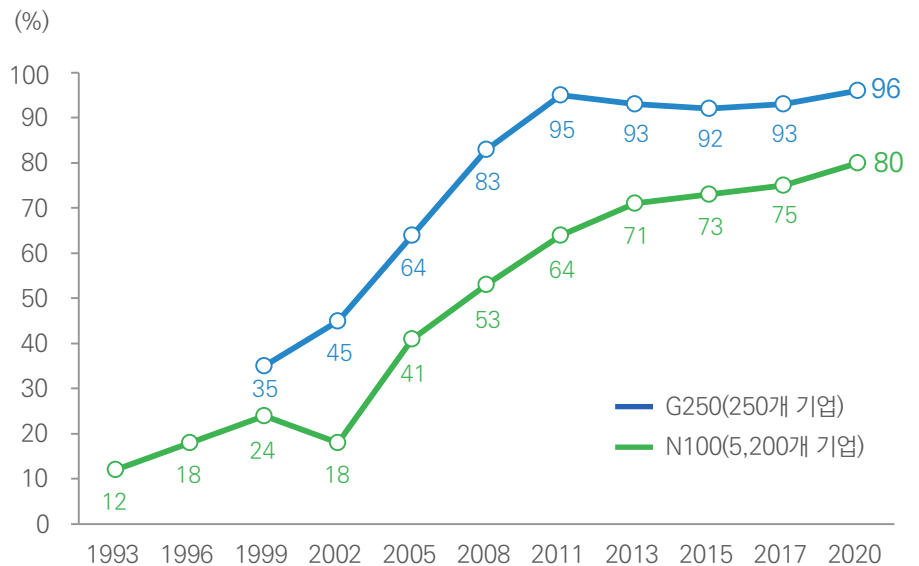
기업 입장에서 ESG 대응은 크게 두 가지 경영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ESG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ESG 성과를 시장에 공시하는 것이다.

ESG 정보공시는 투자자 관점에서 기존 기업의 ESG 정보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개념이다. 세부적으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ESG 리스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반영하여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투명한 ESG 정보가 반영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참고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된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KPMG가 2020년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동향을 조사한 결과, 표준 선정 500대 기업 중 매출 상위 250개(G250) 기업의 96%와 한국을 포함한 52개 각 국가별 매출 상위 100개(N100, 총 5,200개) 기업의 80%가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율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G250은 2011년 이후 항상 90% 이상의 지속가능성 보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N100의 경우 G250보다 지속가능성 보고율이 다소 낮지만,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율의 증가 추이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2020

Note: N100(5,200개 기업)과 G250(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함. N100은 KPMG가 52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을 추출해 구성. G250은 2019년 포춘(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매출액 기준 상위 250개 기업을 의미함

“

ESG 정보공시 관련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대표적으로 GRI,
SASB, WEF-IBC,
TCFD, IIRC, ISO의
기준이 활용됨 ”

ESG 정보공시 가이드라인

그렇다면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의 경우 통합적 지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기업활동의 성과지표 기준과 관련한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GRI 기준(Standards), SASB 기준, 세계경제포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공통지표'를 꼽을 수 있으며, 실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행 방안의 가이드라인으로는 TCFD 권고안, ISO26000, IR Framework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GRI는 미국 환경단체 세리즈(CERES)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1997년 협약을 맺고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을 제정하는 기관이다. 2000년 GRI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지고 GRI G2, G3, G4의 개정 과정을 거쳐 2016년 현재의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GRI Standards)가 제정되었다. GRI 기준은 GRI 101, GRI 102, GRI 103의 보편적 기준(Universal Standards)과 GRI 200, GRI 300, GRI 400의 주제별 기준(Topic-Specific 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다. GRI 101은 보고서 원칙 내용, GRI 102는 일반적 공시 내용, GRI 103은 경영방식 보고 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GRI 200은 경제, GRI 300은 환경, GRI 400은 사회 주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ESG 정보공시와 관련된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명칭	기관	주요내용	비고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GRI Standards)	글로벌 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GSSB)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고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작성 지침	일반적 보고 기준: GRI101,102,103 경제적 영향 기준: GRI 200 환경적 영향 기준: GRI 300 사회적 영향 기준: GRI 400
SASB Standards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산업 부문별로 정보공개 지침과 지속가능성 주제에 관한 회계 기준	Sustainabl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SICS)에 따른 11대 산업군에 따라 별도의 보고지침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Towards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산하 국제비즈니스위원회 (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 IBC)	거버넌스의 원칙, 지구, 사람, 번영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핵심 주제와 가이드라인 제시	WEF는 2023년 기업들이 재무적 가치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도 재무적 가치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 밝힘
TCFD Recommendation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Financial Stability Boar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 및 목표 등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위험의 공개에 초점을 맞춤. 향후 개별 국가에서 법제화 가능성 높음
IR(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	국제통합보고위원회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	재무/비재무 정보 통합 공시 (IR Framework에 따른 외부 환경, Business Model, 전략, Resource Allocation 등)	<기본 원칙> 전략적 집중도와 미래 지향성, 정보의 연결성,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성, 중요성, 간결성, 신뢰성과 안전성, 일관성과 비교가능성
ISO26000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 핵심 주제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기본 원칙>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국제 행동 규범 존중,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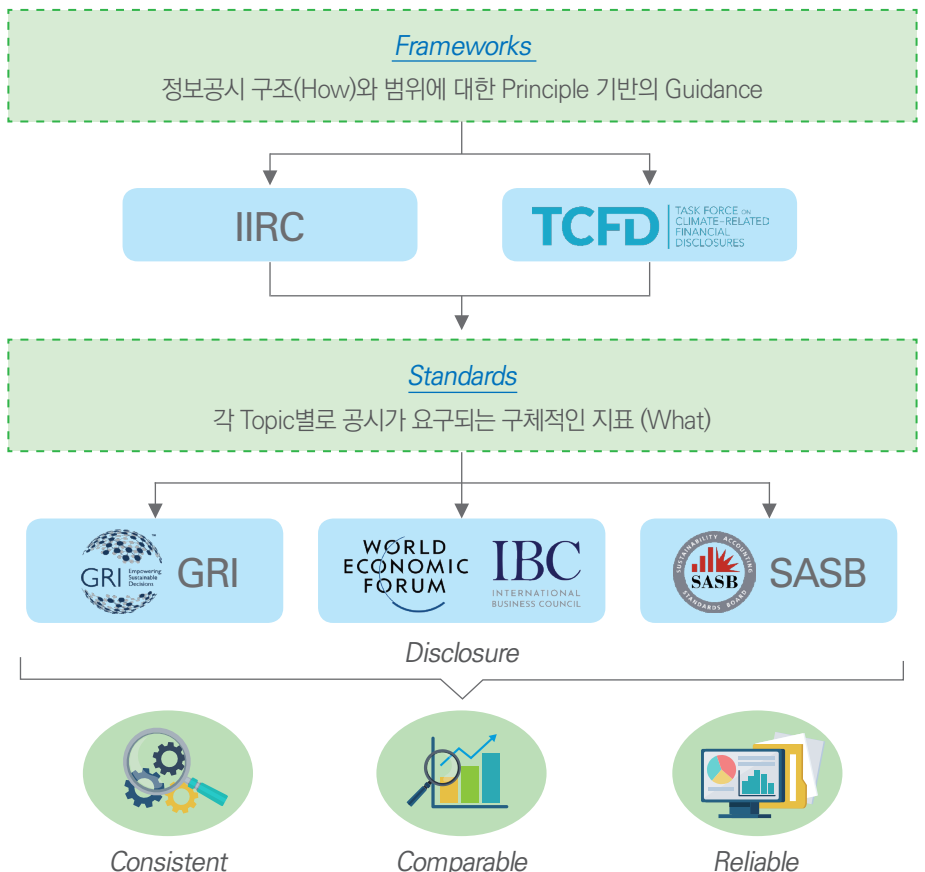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는 ESG 정보공시 실행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주제별 성과 지표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구성 ”

또 다른 비재무 정보공시 기준을 개발하는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에서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ESG 공시 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고의 중대성(Materiality) 원칙에 따라 해당 산업별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연차보고서에서 다루도록 제시하고 있다. SASB 기준은 2018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2020년 초 블랙록에서 기업들에게 SASB 기준 적용을 권고할 정도로 시장에서 빠르게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편 G20 국가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위임을 받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5년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 TCFD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 위험을 반영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 정보공개 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CFD는 기후변화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금융정보공시를 위해 2017년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네 가지 영역에 걸친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TCFD는 기후변화 공시와 관련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실행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ESG 정보공시 실행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세부 주제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의 선정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기관의 표준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가이드라인이 혼재되어 활용되고 있다.

» ESG 정보공시 구조



“ ESG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을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ESG ETF에는 MSCI ESG 지수가 가장 많이 활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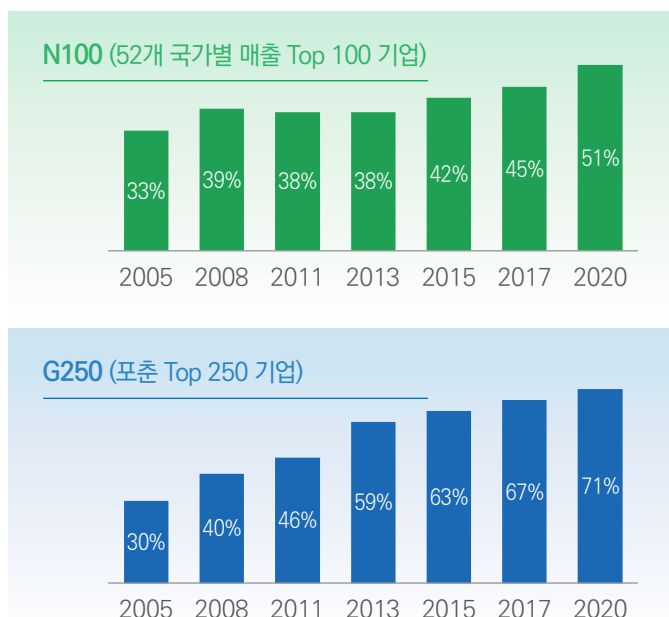
ESG 정보공시 인증 및 평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제3자 인증(Assurance) 또한 주목받고 있다. KPMG의 조사 결과 2020년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인증을 받는 N100(52개 국가별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기업 비중은 KPMG가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이 이제 기업들을 위한 표준 관행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G250(포춘 상위 매출 250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률은 71%에 달했다.

한편 ESG 정보공시에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업의 ESG 평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125개 이상의 ESG 평가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표적인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FTSE, 블룸버그(Bloomberg), S&P, 모닝스타(Morningstar)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신용평가사 등이 기업의 ESG 정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들은 정보수집과 분석 등에서 각각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이한 ESG 점수가 나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어떤 ESG 평가가 가장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MSCI의 ESG 평가가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ESG ETF의 기초 지수에 MSCI ESG 지수가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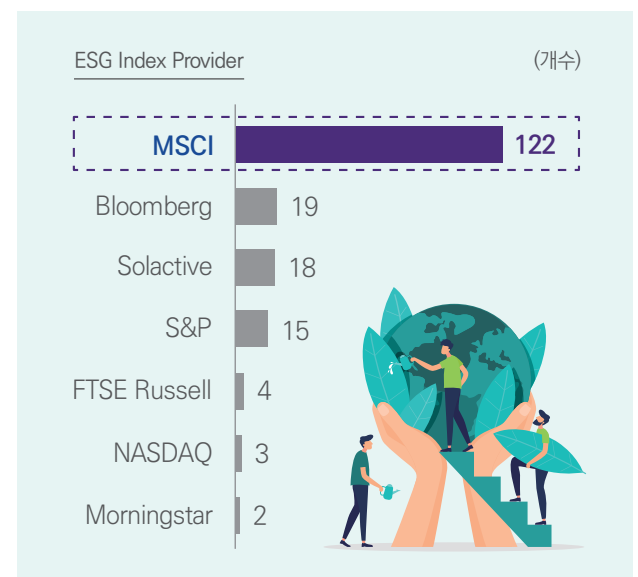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 증가 추이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2020

》 ESG ETF 내 반영되는 ESG Index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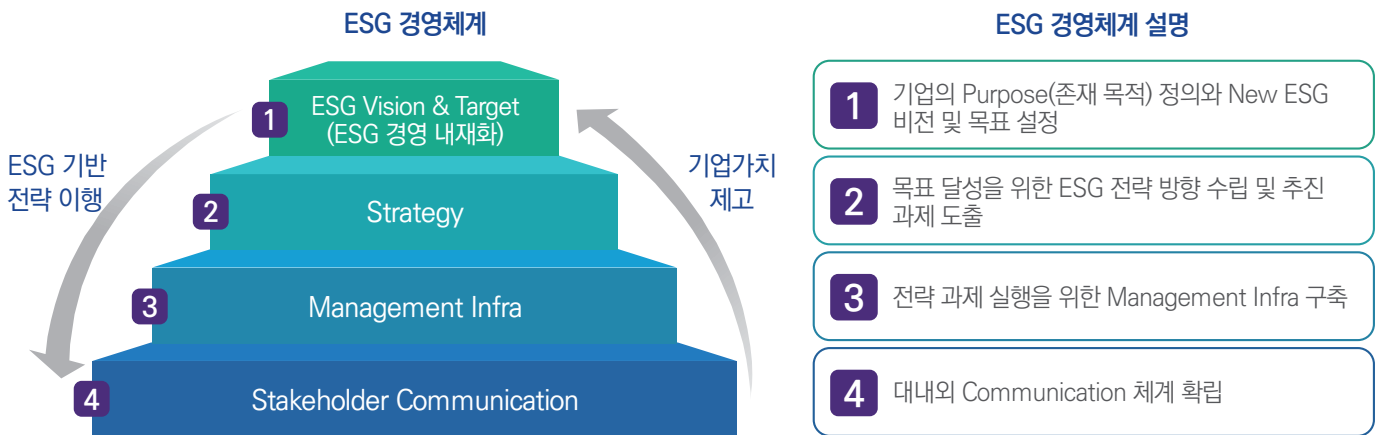


Source: UNCTAD
Note: 2019년 기준

ESG 경영 시대, 기업의 대응 방안

지금까지 ESG의 개념 및 부상 배경과 함께 ESG가 기업에게 왜 중요한지, ESG 경영전략과 ESG 정보공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결국 ESG 경영활동이란 'ESG 경영전략'과 'ESG 정보공시'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ESG 경영활동을 위해 기업은 'ESG 비전 수립'부터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방안'까지 ESG 경영체계를 갖추고, 각 단계별 액션플랜(Action Plan)을 수립하여 이를 심리스(Seamless)하게 추진해야 한다.

ESG 경영 활동



Source: 삼정KPMG

ESG 경영전략 수립 방안

ESG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시장에서 어떤 수준의 ESG 평가를 받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또한 왜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디에 중점을 두고 ESG 경영전략을 전개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SG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ESG 진단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ESG 데이터가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ESG 평가기관의 ESG 평가지표 및 Rating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가령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는 30여 개 세부 ESG 항목을 기반으로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이나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ESG 수준을 판단할 때 MSCI ESG 평가와 같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현재 국내에는 400여 개 기업들이 MSCI로부터 ESG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ESG 평가 테이블을 보면 최상위 ESG 등급을 받고 있는 기업 수는 아직 미미하다. 이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우수 기업 대비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다소 늦었던 측면을 들 수 있다. ESG 평가기관의 평가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벤치마킹하면 국내 기업들 또한 충분히 글로벌 스탠더드의 ESG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

“ 자사의 ESG 진단을 위해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ESG 정보를 활용 ”



“

최고경영진과 이사회가 주도하는 ESG 거버넌스 구축해야 ”

물론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는 것만이 ESG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나 지향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ESG가 아직 생소한 기업의 경우,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지표를 활용한 벤치마킹과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이 ESG 경영전략의 출발점으로 적합할 수 있다.

한편 최고경영진과 이사회가 주도하는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경영전략 수립의 기본 방향이다. 이제 기업의 ESG 정보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공급망, 정부규제기관, 임직원, 고객 등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목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ESG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ESG 관리는 리스크 차원을 넘어 미래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Value Creation)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민첩하고, 선제적이며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최고경영진과 이사회가 주도하여 ESG 이슈가 관리되어야 한다.

자사의 경영체계를 ESG 경영체계로 재설계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기업의 존재 목적과 비전을 ESG 기준에 맞춰 재정립하고, 기업의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통합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과제들을 도출해야 한다. 새로운 ESG 경영체계하에서 세부 전략 과제로 ESG 관련 M&A 검토, ESG 관련 신기술 투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ESG 정보공시는 자사의 재무적 영향과 연계되어 점차 고도화되는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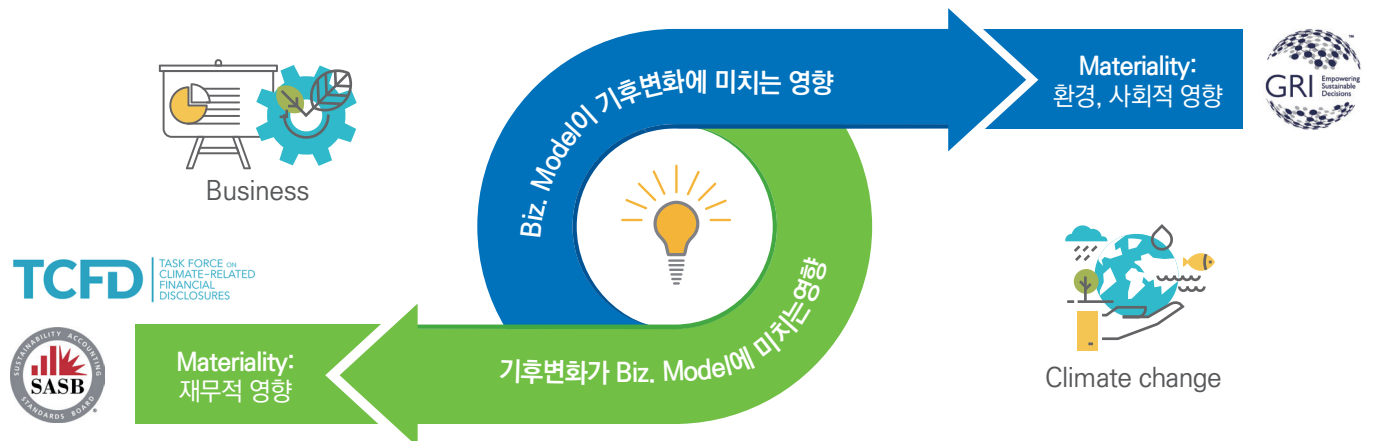
ESG 정보공시 준비 방안

기업은 ESG 정보공시를 통해 자사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자사의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새로운 기회요인을 발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과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환경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환경·사회적 영향이 자사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즉, ESG 정보공시는 자사의 재무적 영향과 연계되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ESG 정보공시 대응 방향성

기후변화 관련 보고:

Biz. Model의 Carbon footprint에 Focus



Financial Society의 보고 요구 사항:

Biz. Model상에서 기후변화가 미치는 재무적 영향에 Focus

“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세부적인 실행 전략
 제시해야 ”

ESG 정보공시에서 기업의 선행 과제는 먼저 기업의 핵심 ESG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G 정보공시에서 GRI, SASB, WEF-IBC의 다양한 기준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마다 영위하는 비즈니스와 외부 환경요인이 상이하므로 각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 또한 동일할 수 없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사의 핵심 ESG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ESG 경영전략 수립과 병행하는 것이 ESG 정보공시를 준비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이미 발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보고서 내용 중에 ESG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충분히 분석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어떠한 전략과 감독 체계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ESG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이사회 차원에서 ESG 이슈를 관리하면서, ESG 정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통해 기업 내 일관성 있는 ESG 측정 기준과 보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투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SG 경영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른 대응을 통해 ESG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ESG 경영을 리스크 대응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기존 비즈니스를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ESG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전략을 갖춰야 한다. 미래 경영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누가 잡느냐는 바로 지금 수립하는 ESG 대응 전략이 결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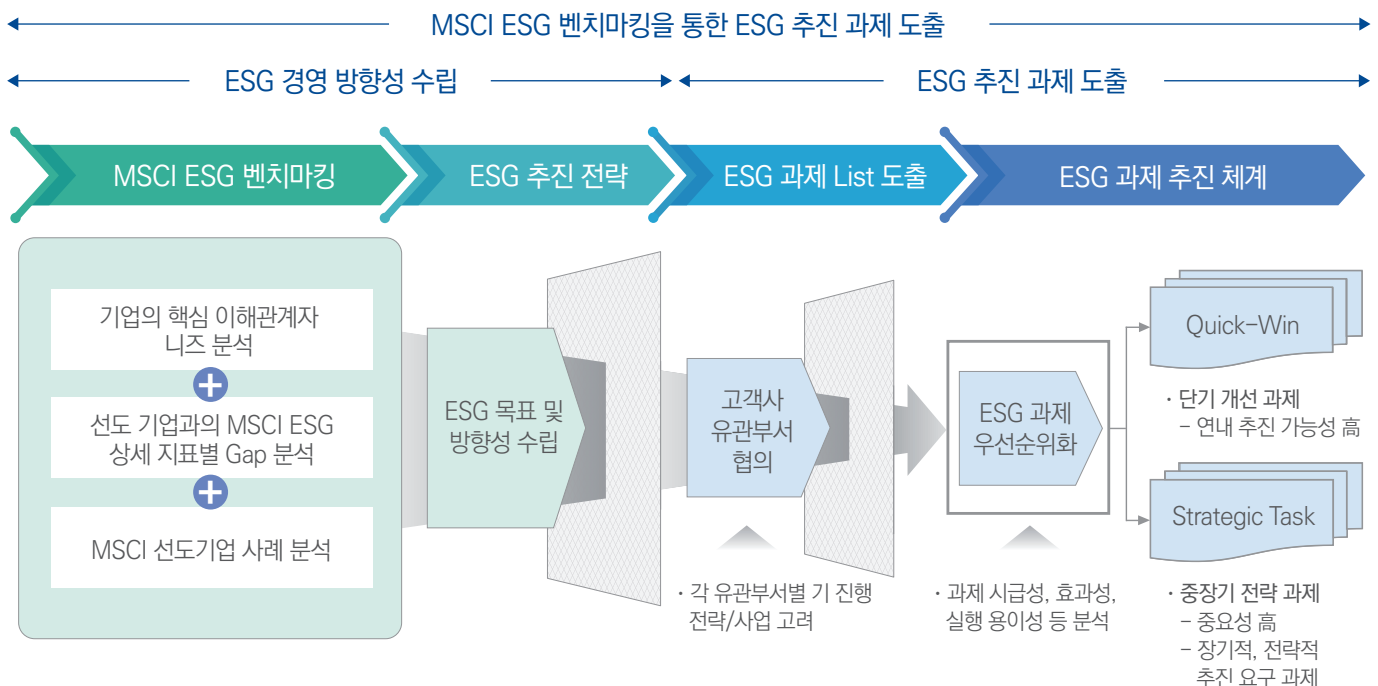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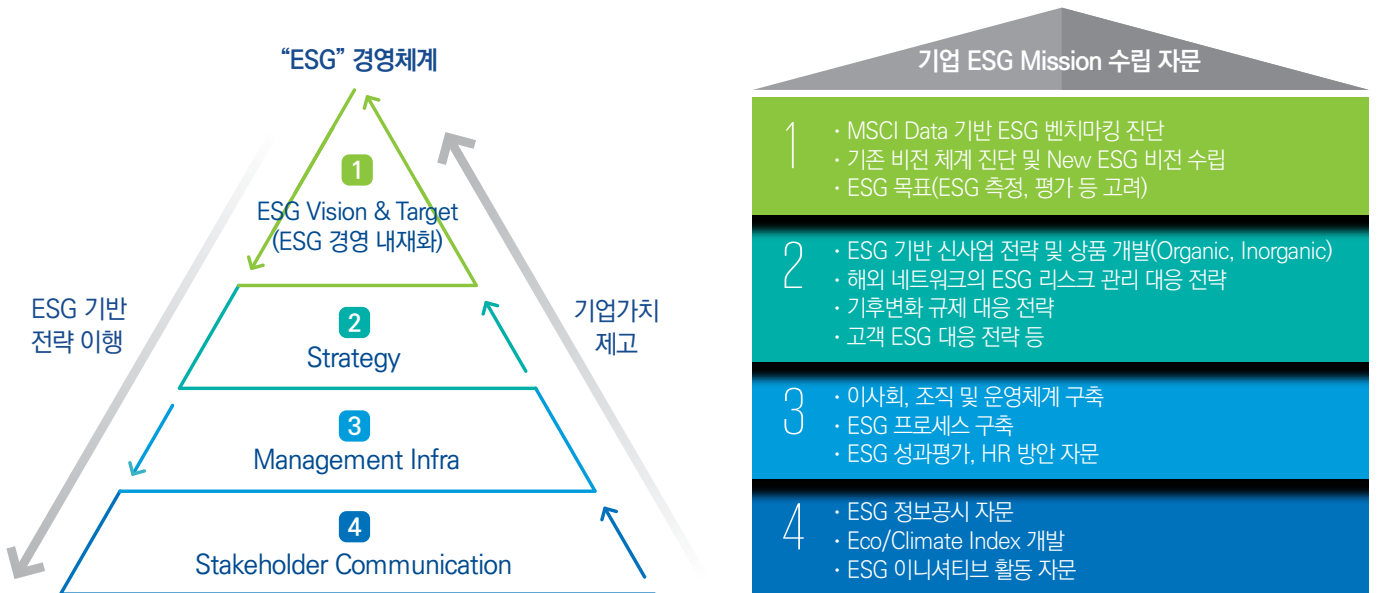




HOW KPMG CAN HELP

삼정KPMG ESG 전담팀은 국내 자문사 최초로 설립되었고(2008년), 국내외 선도기업 대상 400여 건의 ESG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ESG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문사 중 유일하게 글로벌 3,200개 기업 및 국내 400여 개 기업의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SG 평가 데이터를 확보하여, 국내 기업의 MSCI ESG 평가 개선 자문을 수행 중입니다. 삼정KPMG는 Total ESG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법인 ESG Center(ESG 전담팀+전략컨설팅, 회계감사, M&A, 리스크 컨설팅 등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ESG 경영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KPMG 자문영역: ESG 전략 및 정보공시 자문



Business Contacts

ESG 서비스 전문팀

Business Consulting

이동석
전무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윤권현
전무
T. (02)2112-7495
E. kyoonyoon@kr.kpmg.com

김정남
상무
T. (02)2112-7641
E. jungnamkim@kr.kpmg.com

Deal Advisory

김진원
전무
T. (02)2112-0795
E. jinwonkim@kr.kpmg.com

이동근
상무
T. (02)2112-7764
E. dlee@kr.kpmg.com

이준상
상무
T. (02)2112-7566
E. joonsanglee@kr.kpmg.com

산업별 ESG 담당

금융 산업

조정래
상무
T. (02)2112-7525
E. jjoh@kr.kpmg.com

소비재/유통 산업

김시우
상무
T. (02)2112-0893
E. siwookim@kr.kpmg.com

ICT 산업

최진석
상무
T. (02)2112-7669
E. jinseokchoi@kr.kpmg.com

에너지/제조 산업

정재욱
상무
T. (02)2112-7909
E. jjoung@kr.kpmg.com

공공부문

강창수
상무
T. (02)2112-0195
E. ckang@kr.kpmg.com

kpmg.com/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